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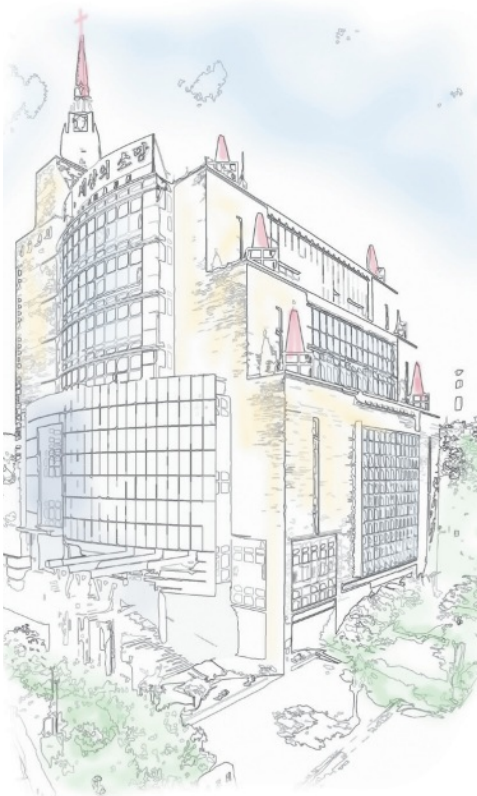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이가 그리스도인가 I

(요 7:25-31)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강론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해서 그를 체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주시했습니다.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은 정말 누구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분위기가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해 갔습니다.

1. 예수님을 적대한 사람들

(1) 유대인

“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요 7:11)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요 7:1).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유대 백성의 민족적 지도자들로 예수의 적대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을 가장 무섭게 짓밟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 무리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요 7:20)

군중이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군중심리에 끌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국이 예수를 죽이지도 않고 잡지도 않는 것을 보니 그들이 예수당인가?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할 만큼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무리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무리입니다.

(3)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요 7:25)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박이들이 폭

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무리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가 적대하고 일부 무리들만 그리스도를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조금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외치고 실천해 가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양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타협을 하거나 비굴한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4) 당국자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7:26)

당국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우와좌왕하니 사회에 혼란이 올까 봐 예수를 잡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고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고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자랐다고 하는 정도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28절). 예수님의 교훈이 자기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 역시 자기가 꾸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2.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7:30)

예수님을 잡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업이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붙들고 있으면 잊어버릴까 봐, 남에게 빼앗길까 봐, 도적이 가져갈까 봐 전전긍긍하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을 때에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다음 주 계속)

다음 주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먼저 개최하기로 - 장로피택 공동의회는 오는 10월 중에 -



8월 22일(주일), 현 당회장 손달익 담임목사가 위임한 대리당회장 이종윤 원로목사의 인도로 열린 임시당회

지난 7월 30일(금) 서울강남노회로부터 서울교회 담임목사 청빙 허락 건과 장로증원 건이 모두 허락되었고, 이에 당회는 정식 담임목사 시무를 시작한 손달익 목사의 인도로 8월 중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노회에서 허락된 장로 10명을 선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현

저히 증가되는 오는 10월 이후 장로 10명 피택과 함께 손달익 담임목사를 정식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까지 거쳐 교회설립 30주년에 맞추어 위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지난 수 십년간 서울강남노회는 지교회의 담임목사나 위임목사 청빙 허락은 봄, 가을 개최되는 정기회 석상에서만 허락하여 왔고 이 원칙 때문에 지난번 정기회가 아닌 폐회 중 임원회에 제출된 서울교회 담임목사 청원 건 허락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노회의 오랜 관례적 원칙만을 내세워 서울교회 분쟁 마무리에 조그만 걸림돌이라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고려에서 위 청빙 건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허락하기로 한 것인데 이번엔 다시 위임목사 청빙 건이 정기회가 폐회된 이후 새로이 접수되면 같은 문제가 또 제기되어 위임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번 정기회 이전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고 충분한 인원이 모일 수 없을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공동의회를 열어 위임청빙 건을 의결하여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당회는 지난 주일 현 당회장 손달익 담임목사가 위임한 대리당회장 이종윤 원로목사의 인도로 임시당회를 열어 10월 이후 진행하려

“
위임목사 자격이 갖춰지면
교회는 노회나 총회와의
행정에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위임목사를 도와
목회사역을 감당할
교구나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할 부목사도
헌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청빙할 수 있게 됨

”

마다 나누어 투표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의 위임청빙 찬반 의사를 묻기로 한 것이다.

이 투표에서 총 투표수 2/3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면 지난 5월 16일(주) 개최된 제직회에서 서울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청빙된 손달익 목사는 약 6개월이 경과한 11월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 시 현재 훈련 중인 피택집사, 피택권사 임직식과 함께 위임식을 거쳐 3대 위임목사로 서 정식 시무를 시작하게 된다.

위임목사 자격이 갖춰지면 교회는 노회나 총회와의 행정에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위임목사를 도와 목회 사역을 감당할 교구나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할 부목사도 헌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청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8월 16일(월) 개최된 장로수련회에서는 시무장로는 물론 담임목사와 부목사들까지 함께 참석하여 올해 초 구성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수개월간 연구하여 당회에 보고된 여러 제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장, 단기 과제로 나누어 논의하였고 앞으로 좀 더 검토를 거쳐 11월로 예정된 목회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던 두 가지 계획 중 위임목사 청빙 건을 분리하여 정기회 이전에 먼저 처리하고 장로피택 건은 예정대로 정기회 이후 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여 오는 9월 5일(주) 위임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현 방역수칙 상 예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제한으로 한꺼번에 모일 수 없어 부득이 1, 2, 3부 각 예배시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데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백서 담당자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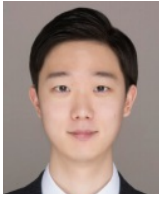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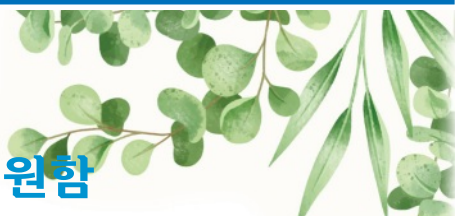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김은호 황수지(육사생도)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규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새롭게 되는 날!

주님 앞에서 얻는 총만한 기쁨과 시원함



조재석 성도
(청년 2부 총무)

8월 14일 (토) 하루 동안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강화

로 인해 준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련회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선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한대석 집사님과 함께하는 2030 신앙생활 세미나', 신천지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 신천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신천지 특강 세미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미와 유익을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찬양 집회를 시작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주제로 안용곤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 안에서 새롭게 됨을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준비하

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현재 청년부 인원도 몇 안되어 임원들의 수련회가 되진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송출을 위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장비, 음향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청년이 없어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진행 중에도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단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끝까지 참가해 주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나오지 않던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심 안에서 서울교회 청년부가 회복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청년부를 통해 보여주시길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자녀들이 가정에 있다면, 청년부 회복을 위해 안용곤 전도사님과 임원단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청년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소정 성도
(청년1부 회계)

교회 회복되는 첫 해에 임원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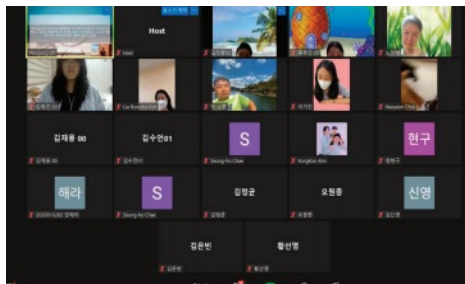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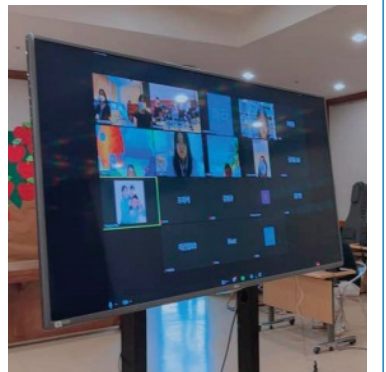
이번 수련회 세미나는 먼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고 고민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천지 바로 알기'와 '2030 세대의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세미나를 통하여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신천지인은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연극, SNS,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을 포교한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천지 추수꾼이 교회로 침입하여 신천지로 지목 당하였을 때 이를 부인하고 당회에 알리는 등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했던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030 세미나에서는 교회 봉사를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세로 임하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세 등 크리스천 청년으

로서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세미나 이후에는 각 세미나에 참석한 지체들로 팀을 나누어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였는데 많은 지체들이 각 주제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서 20-30대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청년의 의미, 이단으로부터 대처 방법, 이 모두가 현재 서울교회 청년부 모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워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청년부 지체들이 각자 제 자리에서 청년부 그리고 교회를 위해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셨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스스로가 돌이켜 보고 회개하여 앞으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처음 비대면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듣기만 하던 주님을 눈으로 뵈고 지난날을 돌아보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올해 청년부 사역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 일정

구분	일시	교육과목	강사
2차 교육	9월 5일(주)	직분자와 영성	전재홍 목사
	9월 12일(주)	구약개설	서명철 목사
	9월 19일(주)	신약개설	장석남 목사
	9월 26일(주)	예배모범과 주일성수	박미라 전도사
	10월 3일(주)	한국교회사	조원영 목사
	10월 10일(주)	총회헌법과 교회규정	당회(기획위원회)
	10월 17일(주)	교회행정 및 회계처리 과제물 제출일 (10월 25일)	당회(기획위원회)
면접 및 시험	11월 5일, 6일, 7일 중 택일	당회고시 및 당회원 면접	당회

등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9.4. 토요일에 사랑의 쌀 조찬기도회와 몽골 국제올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조성현 성도(조남현 집사 장남, 조정식 은퇴장로, 김영식 은퇴권사 손자, 미국LA) '올해의 성적 최우수 장학생'으로 뽑혀 대통령상 수상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30일	월	겔 28-30		대하 1-9	
8월31일	화	겔 31-33		대하 10-20	
9월1일	수	겔 34-36		대하 21-29	
9월2일	목	겔 37-39		대하 30-36	
9월3일	금	겔 40-42		스 1-5	
9월4일	토	겔 43-46		스 6-10	
9월5일	주일	겔 47-48		느 1-7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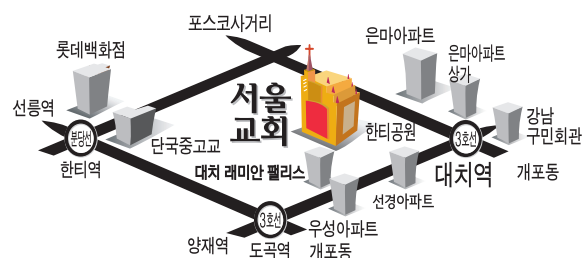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손달익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2.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3. 코로나 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